『종교학연구』 제 37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19. pp. 145-169.

니체와 엘리아데의 영원회귀사상 비교*

: 시간관과 운명관을 중심으로

오 지 혜**

Ⅰ. 서론
Ⅱ. 본론
1. 사상 개괄
1) 두 사상가의 인간과 시간에 대한 이해
2) 두 사상가의 시간관
2. 사상의 문제의식
1) 고통의 정당화
2) 두 사상가의 운명관
Ⅲ. 결론

Ⅰ. 서론

꼬리를 문 뱀으로 형상화되는 '우로보로스(ουροβόρος)'는 예로부터 유명한 비의적 상징이다. 그것은 시작과 끝이 동시에 존재하며 각자가 서로를 존립시킴을 의미한다.[50]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이 고대적 상징을 가장 잘 대변하는 명칭은

---

* 이 논문은 종교학과 학부 졸업 논문을 수정하여 투고한 글입니다.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학부 졸업생

50) "우로보로스는 '꼬리를 삼키는 자'라는 뜻이다. 고대의 상징으로 커다란 뱀 또는 용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삼키는 형상으로 원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주로 나타난다. 수세기에 걸쳐서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이 상징은 시작이 곧 끝이라는 의미를 지녀 윤회사상 또는 영원성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왔다. ...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로보로스가 자신의 입(몸의 시작)으로 자신의 꼬리(몸의 끝)을 묾으로써 처음과 마지막이 묶인 원이

‘영원회귀(eternal return)’일 것이다. 이 영원회귀와 관련된 사상으로 유명한 두 학자로는 엘리아데(Mircea Eliade)와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가 있다. 두 사상가의 사상의 주축을 이루는 핵심 용어가 비슷한 어감을 지닌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와 관련된 둘의 문제의식과 설명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둘의 개념을 비교한 선행연구가 국내에는 많지 않았기에 이 논문에서 비교작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작업은 두 사상가의 핵심사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 있을 것이다.

비교작업을 위해 두 사상가의 핵심적인 저술인 엘리아데의 『영원회귀의 신화 Le mythe de l′éternel retour』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51]를 참고했다. 전자는 연구서, 후자는 실존철학적 서사시로서 같은 형식의 텍스트는 아니나, 그럼에도 그것들은 각 사상가의 주요 저서이자 영원회귀가 핵심 개념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논고의 비교작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52] 보다 후대의 학자인 엘리아데가 『영원회귀의 신화』에서 니체를 2번 가량 언급했다는 사실에 기초해, 그가 어떤 관점으로 니체를 평가하는지와 더불어 그러한 역사철학적 사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되어 탄생과 죽음의 결합을 상징한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원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다 보면 끝을 찾지 못하고 무한하게 회전을 되풀이한다는 점 때문에 우로보로스에게도 ‘불사’ 또는 ‘무한’ 등과 같은 의미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속에는 탄생과 죽음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 ... 한편 이 처음과 끝 사이에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바뀌게 마련이므로, 우로보로스란 이름에는 ‘변화’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완전’과 ‘변화’라는 개념 때문에 우로보로스는, 또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금속을 완전한 금속인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현자의 돌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었다. 아울러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라는 생각에서, ‘지식’까지도 뜻하게 되었다.” 「우로보로스」, 『위키백과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 %EC%9A%B0%EB%A1%9C%EB%B3%B4%EB%A1%9C%EC%8A%A4 (2019년 11월 25일 접속).

51) 번역서는 ‘엘리아데, 미르치아, 『영원회귀의 신화』, 심재중 역, 서울: 이학사, 2003.’와 ‘니체, 프리드리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장희창 역, 서울: 민음사, 2004.’를 참고했다. 인용 시 전자는 소괄호()를, 후자는 대괄호[]를 사용해 쪽수를 표기하였다.

52) 엘리아데의 저서에서는 *L′Éternel retour*(The Eternal Return), 니체의 저서에서는 *Ewige Wiederkunft des Gleichen*(The Eternal Return)로서 표기된다.

> 17세기부터 역사에 대한 선적이고 진보주의적인 관념이 점점 강하게 대두하면서 무한한 진보에 대한 믿음이 자리잡는다. 이미 라이프니츠가 표명한 바 있는 그러한 믿음은 "계몽주의" 시대를 풍미하였고, 19세기에 이르러 진화론이 득세하면서 대중화된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역사의 선조성에 대한 몇몇 반작용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순환론에 대한 관심도 되살아난다. 정치 경제학에서 순환, 변동, 주기적인 파동 등의 개념이 복원된다든가, 철학에서 니체에 의해 영원회귀의 신화가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된다든가, 역사철학에서 슈펭글러나 토인비 같은 사람들이 주기성의 문제를 거론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현상들이다. (147, 밑줄 인용자)

엘리아데는 '영원한 반복'이라는 고대적인 신화의 개념이 재조망되는 것이 현대의 순환이론에 와서라고 정리한다. 그에 따르면 헤겔 이후 역사적 사건에 부여되어왔던 무수한 의미를 철폐하고 역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온갖 노력이 이뤄졌다. 하지만 그러한 역사주의 철학은 세계사의 집단적 불행, 학살, 추방 등 "역사의 폭압"을 방어할 속 시원한 해답을 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난점을 지녔다. 역사주의에 따르면 "모든 역사적 사건이 그 실현 자체에서 자신의 유일하고 완전한 의미를 발견(151)"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고자 몇몇 현대 사상가들은 '순환 관념들의 복권', 원형의 영원한 반복이라는 순환이론을 제안하였다. 엘리아데에게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은 이러한 난점을 비판하고 보완하고자 '순환론을 도입한 역사주의 철학의 일종'인 것이다.

또한 엘리아데가, 역사적 삶의 상대성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보편적인 생 체험"이나 "자기 성찰(151)"을 내세운 딜타이나 마이네케의 시도는 허사에 그쳤다고 평가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엘리아데에게는 니체의 '운명애'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폭압을 극복하려는 불완전하며 성공적이지 못한 시도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면 실제 그렇게 간주하는 듯하다.

> 니체의 '운명'에서부터 하이데거의 '시간성'에 이르기까지 역사주의 철학에서 절망, 운명애amor fati, 염세주의 등이 영웅적인 덕성이나 인식 수단의 지위로까

지 격상된 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에서 비롯된 결과는 아니다. (153)

이러한 엘리아데의 니체 이해가 적절한지는 본론에서의 비교작업을 통해 추후 살펴보겠다. 본론에서는 우선 엘리아데와 니체가 영원회귀 사상의 밑바탕에 전제한 인간과 시간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 각자의 시간관과 영원회귀 사상을 개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시간에 대한 이들의 논의는 자연스레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건, 특히 그러한 사건들이 야기하는 '고통'이 어떻게 설명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바탕으로 각 사상이 운명에 대해 지니는 관점을 분석하겠다.

이러한 구성 속에서 우리는 특히 1) 시간과 운명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와 2) 두 사상가의 시간관과 운명관이 어떻게 겹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간과 운명이라는 두 가지 줄기를 바탕으로 두 사상의 맥을 짚어보는 작업을 통해, 우리는 둘을 보다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유용한 시간관과 운명관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통찰 역시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두 사상가의 저서는 다른 형식의 텍스트로, 엘리아데는 고대인에 대한 종교현상학적 기술을 목표로 한 반면, 니체는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문에서 엘리아데의 사상이라 서술한 시간관, 운명관은 '엘리아데가 기술한 전통적 인간'의 시간관과 운명관이라 보는 것이 정확함을 미리 밝힌다.[53]

53) 그럼에도 본문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엘리아데의 사상, 엘리아데의 영원회귀' 등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할 것이다.

Ⅱ. 본론

1. 사상 개괄

1) 두 사상가의 인간과 시간에 대한 이해

[도식1] 인간과 시간에 관한 이해 (좌 엘리아데, 우 니체)

인간과 시간에 관한 엘리아데의 이해는 니체의 이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한 경계를 지닌다. [도식1]의 왼쪽 그림과 같이, 엘리아데의 서술에 따르면 고대인(전통적 인간)과 역사적 인간, 영원과 역사는 엄격히 구분되며, 하나는 다른 하나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 무엇이다. 전통적 인간은 역사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인간으로, 역사적 사건 그 자체에 내재된 고유한 가치를 부정한다. 전통적 인간에게 역사적 사건은 “자기존재양태의 특징적인 한 범주(142)”가 아니다. 그렇기에 역사에 초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거나(순환론이나 종말론적 의미 등), 그것을 아예 폐기하거나 가치절하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일어난다. 반면, 역사적 인간은 기꺼이 역사적이고자 하는 인간, 역사의 창조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인간이다. 그들은

역사적 사건을 그자체로서, 그 자체를 위해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노력한다. 역사의 온갖 사건은 "역사적 필연성(149)"이기에 그 자체로 가치 있으며, 그들에게 인간은 전통적 관념을 수용한다고 해도 결국 역사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엘리아데의 영원회귀는 전통적인 인간이 역사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채택한 존재론이며 주로 '원형론', 즉 역사가 그것을 넘어서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모델인 '원형'을 지니며 원형과 그것의 반복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고대인의 주장으로 간주된다. 이 때 '회귀'는 그자체로 전통적 인간의 '목적이자 지향'이며,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려는 삶의 양태를 총칭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시간의 순환과 주기적인 재생, 사건들의 주기적인 회귀를 주장하는 '순환론' 역시 영원회귀의 일종으로 중요하게 간주될 것이다.

[도식1]의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 니체 역시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인간과, 인간을 넘어선 자로서의 초인이 바로 그것이다. "가련하기 그지없는 안일함"에 의해 초월하려는 의지를 상실했으면서도 스스로를 고상하게 여기는 '말종인간'은 초인에 의해 혹독한 비판을 받는 대상이다. 허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초인이 될 가능성을 지닌, 즉 스스로를 초월할 잠재성을 지닌 가치중립적인 존재이며, 따라서 인간과 초인은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작품 초반에 태양을 향해 자신의 흘러넘치는 지혜를 인간들에게 베풀고자 '몰락'하겠다고 선언한다. 그가 자신의 산으로부터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오는 이 장면은 인간에 대한 초인의 사랑을 드러내며, 초인이 인간과 떨어져선 의미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 그대 위대한 별이여! 그대가 빛을 비추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존재가 없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 나는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려 한다. 인간들 가운데서 현명한 자들이 다시 그들의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이 다시 그들의 넉넉함을 기뻐할 때까지. 그러기 위해 나는 저 심연으로 내려가야 한다. 저녁마다 바다 저편으로 떨어져 하계를 비추어주는 그대처럼, 그대 넘쳐흐르는 별이여! 나는 그대와 마찬가지로 몰락해야한다. 내가 저 아래로 내려가 만날 사람들이 말하듯이. (11-12, 밑줄 인용자)

마찬가지로 니체는 영원과 역사(또는 순간)의 차이를 인지하나, 그 둘은 항상 통합되어 있으며, 초인의 인식에 의해 재통합되는 관계에 있다. 영원회귀를 통해 순간은 영원의 지위를 부여받고, 순간은 역사적 순간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순간(역사를 초월한 순간)이다. 초월한 것(영원, 초인)은 초월되는 것(역사, 인간)을 전제하지 않고선 설명될 수 없으며, 그렇기에 초월한 것은 초월되는 것을 그 자체에 내포한다.

이러한 모호한 구분은 니체의 사상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데, 그가 세계를 두 가지 대립하는 쌍으로 설명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이원론은 생성과 소멸이 뒤엉킨 카오스적인 삶을 견디지 못하여 그와 반대되는 완전한 세계이자 이상향을 욕구하는 인간의 나약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54] 이러한 비판은 영원과 역사를 완전히 구분한 전통적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파악한 두 사상가의 인간과 시간에 대한 상이한 이해는 각 사상의 기축이 되기에, 이러한 차이는 이후의 논의에서도 핵심적이다. 이제 둘의 시간관을 분석하면서 영원회귀 사상을 개괄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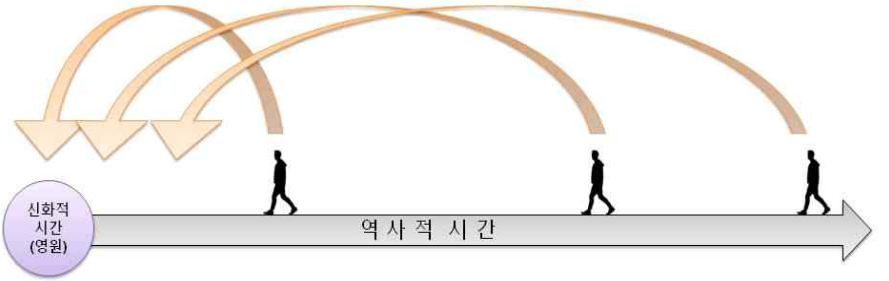
2) 두 사상가의 시간관

엘리아데에게 시간은 앞서 언급한 그의 구분처럼 명확히 두 개로 나뉜다. 즉 그에게는 고대인들이 살아가는 신화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이 뚜렷이 구분된다. 엘리아데는 역사의 폭압이 강화되어 실존이 불안정해질수록, 역사주의는 그 지지를 상실할 것이라 예측했다. 요컨대 이러한 역사적 시간에 대한 (저항을 넘어선) 반항은, 역사의 시간을 우주적이고 순환적이며 무한한 시간 안에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귀결될 것이고, 영원한 반복의 신화에 대한 이러한 향수는 곧 “시간의 폐기를 향한 향수(154)”이다. 태초의 신화적 시간은 역사적 시간을 창조했고, 그것을 넘어

54) 오윤정, 「영원회귀사상에서 드러나는 니체 고유의 시간성: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중심으로.」, 『미학』 Vol.82(3) (2016), 2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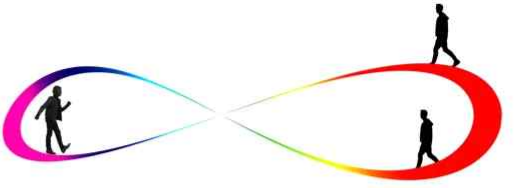
서있기에 둘 역시 엄밀히 구분된다. 원형으로서의 신화적 시간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재현되어야 하며, 그때서야 비로소 역사적 시간은 존재하는 무엇으로서 '의미(존재론적 의미)'를 획득한다.

따라서 [도식2]에서 볼 수 있듯, 엘리아데의 영원회귀는 '영원에의 회귀(영원으



[도식2] 엘리아데적 영원회귀의 시간관 ; 영원에의 회귀

로 회귀한다)'이다. 역사적 인간이 신화적/원형적 시간을 망각하고 그것을 재현하지 않는 데 반해, 전통적 인간은 그러한 시간을 끝없이 기억하고 재현한다. 고대인들은 원형과 반복의 관념들 속에서 의지처와 위안을 발견하였고, 천체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신화-역사적 차원에서 그러한 관념들을 '살았다.' 이러한 신화적, 원형적 시간은 '공간적 중심'에 대응하는 시간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그들에게 공간적 중심이 삶이라는 여정의 목적지 역할을 했듯, '태초의 그때(*illud tempus*)'라는 시간적 중심 역시 그들 존재의 핵으로서 작용했다. 그것은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으로서, 그로부터 파생된 것인 역사적 시간은 핵 없이는 의미도, 가치도 없는 껍데기 같은 것이었다.



[도식3] 니체적 영원회귀의 시간관 ; 회귀의 영원성

반면, 니체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생성과 소멸의 반복(영원회귀)을 새로움과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고귀한 운명'으로 느낀다. 그의 사상을 더욱 밀고 나가면, 그것은 단순한 숙명이라기보다는 인간 및 초인의 의지에 의해 초래되는 세계의 근원적 상태로까지 이해될 수 있다.[55] 따라서 [도식3]과 같이 니체의 영원회귀는 '회귀의 영원성(회귀가 영원하다)'이며, 여기서 영원과 회귀는 동치이다. 이에 대한 언명으로서 "둥근 고리의 의지[566]"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초반에 언급한 비의적 상징으로서의 우로보로스는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에 훨씬 부합하는 모델인 셈이다.

영원회귀 사상에서 엘리아데의 전통적 인간이 '시간적 중심'을 중요시한 데에 반해, 니체의 초인은 모든 지점이 중심으로서 작용하는 만큼 '중심이 부재함'을 안다. 이러한 중심의 부재를 한층 더 밀고 나아가 모든 인간적 경험의 순간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역사가 영원이라면, 역사가 역사로서 성립하는가? 그것

55) 이상엽은 「니체의 '동일한 것의 영원회귀'에 대한 연구」, 『한국니체학회연구』 (2003), 82-83쪽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니체는 이 사상을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이 사상을 "하나의 가능성의 사상", 말하자면 "하나의 가설", "하나의 새로운 세계고안"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니체의 순환사유에서 '객관성'이나 '타당성'에 관한 논의는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정리한다. 즉 세계에 관한 고대인이나 니체의 순환사유는 모두 그 진위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나,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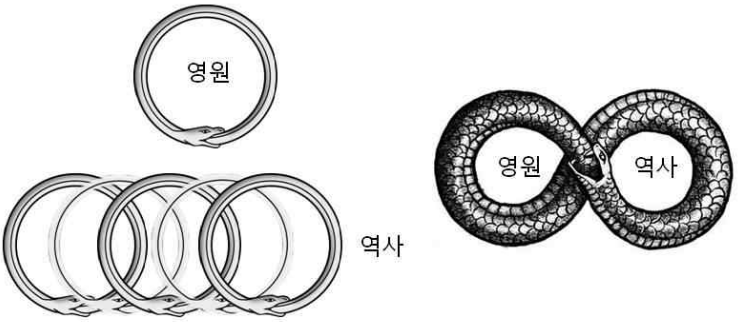
들은 무수한 현재의 흐름에 불과하다.[56] 지나간 경험들은 매순간 현재로부터 밀려나면서도 영원한 존재론적 지위를 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현재' 존재한다. 결국 니체식 영원회귀는 역사에 저항하지 않고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역사'의 의미가 자연스레 승화되는 개념이다. 즉 엘리아데가 앞에서 뒤로 흐르는, 선형적인 것으로 파악했던 역사적 시간과 다른 무엇으로서 니체의 시간이 드러난다. 오윤정은 그의 논문에서 니체가 영원회귀 사상을 통해 시간에 대한 기존의 사유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이러한 한계를 '삶을 부정하는 사유'에서 '삶을 긍정하는 느낌'으로의 전회를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고 정리한다. 니체적 의미의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선형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적 시간'이 현재의 순간으로 응축되는 '카이로스적 시간'이다.[57] 전자를 역사, 후자를 영원이라고 할 때, 후자는 전자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성립하는 무엇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응축'하며 초월한 무엇이다.

뒤에 더욱 자세히 논의할 것이나, 니체는 기존 관념이 부여한 의미를 철회하고자 노력했던 철학자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시간의 폐기 혹은 역사적 시간에 초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초월에의 긍정에 따른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귀결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에서 엘리아데의 전통적 인간의 지향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

56) "왜냐하면 지상에는 이러한 일을 잴 수 있는 어떠한 시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571]

57) 오윤정, 「영원회귀사상에서 드러나는 니체 고유의 시간성: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중심으로.」, 243-244쪽.



[도식4] 시간의 존재론적 위계 (좌 엘리아데, 우 니체)

[도식4]의 분석을 통해 각각의 영원회귀에서 시간이 어떠한 존재론적 위상을 지니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자.[58] 엘리아데에게 영원이라는 신화적 시간은 아래의 역사적 시간에 대해 존재론적 우위를 차지한다. 그것으로 인해 아래의 시간이 탄생했으며, 이를 원형으로 삼고 이를 반복함으로써만 역사적 시간은 의미로서 실재하는 무엇이 된다. 역사적 시간선상에서 뚜렷한 뱀의 형상과 뚜렷하지 않은 뱀의 형상은 각각 원형의 재현이 성공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상징하는데, 전통적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은 뚜렷한 뱀의 형상일 뿐이다. 흥미로운 점은 원활한 비교를 위해 도입한 이 도식이 원형론 뿐만 아니라 순환론 역시 담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태초의 신화적 시간은 이미 창조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완수하였고, 이러한 과정이 역사 속에서 무한히 반복된다. 예를 들어 나라가 건국되고 발전하다 쇠퇴의 시기를 맞아 쇠락하고 또 다른 나라가 건국되는 것과 같이, 사건들의 주기적 순환은 역사적 사건을 우주적 사건으로서 승격시키며 초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정리하자면, 역사적 시간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지 않기에 보다

58) 시간의 존재론적 위계를 설명하기 위해 도식에 우로보로스라는 형상을 가져 온 이유는, 그것이 앞서 설명했듯 '영원성, 무한, 시간'이라는 의미 외에도 '변화'라는 의미까지 포괄적으로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것이 원형적 시간으로서의 신화적 시간(영원)과 변화를 담지하는 역사적 시간이라는 두 개념을 동시에 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높은 존재론적 위상을 지닌 무엇에 의해 끝없이 정당화되어야 하고, 전통적 인간은 그러한 정당화를 끝없이 수행함으로써 역사의 폭압을 견딘다.

반면 니체에게 영원과 역사는 동등한 존재론적 위상을 지닌다. 태초의 원형적 시간이 곧 역사적 시간의 시작과 끝의 원인이라면, 역사적 시간은 원형적 시간의 시작과 끝의 결과이기에 둘은 서로를 존립시키며 그 존재론적 의미를 정립해준다. 그에게 영원회귀는 모든 실존하는 인간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현상적 사실'이다. 한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며, 시간 속에서 인간은 한 순간으로 영원히 돌아오게 된다는 이 사상은 삶의 매초에 엄청난 책임감과 무게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초인과 인간은 각각 이러한 회귀의 영원성을 자각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를 의미한다. 회귀 자체가 영원함은 불변의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이와 깨닫지 못한 이들은 필연적으로 실존의 자세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초인은 영원회귀라는 사실적 현상을 수용함으로써 자기 삶에 주어지는 실존적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이들이다. 그에 반해, 아직 스스로를 초월하지 못한 이들(인간)은 그러한 시간의 무게에 중압감을 느끼고 그것을 부정하려 든다. 아래의 인용에서 초인과 인간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는 각자가 시간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대변한다.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인간과 달리, 초인은 죽음을 삶을 완성시키는 방편으로서 이해하며, 이러한 이해의 기저에는 영원회귀에 대한 긍정이 깔려있다.

> "알맞은 때에 죽어라." 하고 차라투스트라는 가르친다. 하지만 때에 맞게 살아보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알맞은 때에 죽을 수 있겠는가? 차라리 이러한 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인간쓰레기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그러나 인간쓰레기들도 자신의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속이 텅 빈 호두조차도 깨뜨려지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죽음은 아직도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축제를 벌이는 법을 아직도 배우지 못했다. 나는 삶을 완성시키는 죽음, 산 자에게 가시가 되고 굳은 맹세가 될 죽음을 그대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삶을 완성시키는 자는 희망을 가진 자와 맹세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승리에 찬 죽음을 맞는다. 이와 같이 인간은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124-125, 밑줄 인용자)

그렇다고 니체의 초인과 인간을 각각 엘리아데의 (영원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인간과 (역사에 초점을 맞춘) 역사적 인간에 매치시킬 수는 없는데, 초인은 전통적 인간과 달리 역사적 사건 자체와 진화의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진화를 끝없는 자기초월이라는 인간의 운명으로서 최대로 긍정한다. 아래의 인용에서 '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적 시간의 지평을, '황금빛 공'을 던지라는 촉구와 '상속'은 인간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의 진보를 함의한다.

> 죽음 앞에서도 그대들의 정신과 덕은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저녁놀처럼 활활 타올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대들의 죽음은 실패이리라. 나 자신도 그렇게 죽고 싶다. 그리하여 그대들이 나로 인하여 이 대지를 더욱 사랑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었던 대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안식을 얻고 싶다. 참으로 차라투스트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공을 던졌다. 그러니 벗들이여, 나의 목표를 상속할 자가 되도록 하라. 나는 그대들에게 황금빛 공을 던지노라. 벗들이여, 나는 그 무엇보다도 그대들이 황금빛 공을 던지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땅 위에 잠시 더 머물려고 한다. 나를 용서하라! (128, 밑줄 인용자)

그렇다면 이제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은 '니체와 엘리아데의 영원회귀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간주되는가?'이다. 하지만 그렇게 단언할 순 없다. 엘리아데는 니체가 주장한 유형의 영원회귀 개념의 존재와 그것이 자신의 사상 내에 포괄되어 설명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니체는 후대 사상가인 엘리아데의 영원회귀 사상을 알지는 못하나, 그의 영원회귀를 엘리아데의 것과 비교해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우주의 모든 계기들과 상황들이 무한히 반복되면 그 모든 계기들과 상황들의 덧없는 소멸은 궁극적으로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해진다. 무한의 관점에서는 각자가 그 자리에 머무르며 그럼으로써 원형의 존재론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데, 엘리아

데는 이러한 이론의 대표격으로 그리스의 영원회귀 이론을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역사적인 생성은 존재로 충만해지고, 역사적 사건들 역시 범주로서 고대인의 존재론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리스의 영원회귀 이론은 곧 "원형적인 행위의 반복이라는 고대 신화의 마지막 변이형(128)"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원형론과 순환론이 종합되어 있는 사상으로,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엘리아데에게는 이 역시 역사에 대한 방어와 강한 반역사적 태도를 함의하는 것으로서 간주된다.

그런데 니체의 영원회귀는 모든 현상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점에서 그리스의 영원회귀와 내용을 공유하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엘리아데와 명확히 구분된다. 니체에게 역사적 사건은 반복에 의해 의미를 지니어 존재론적 지위가 승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즉 초월의 한 과정들이자 순간들로서 '이미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역사는 본디 영원이 실재하는 것만큼 실재해왔고, 역사에 부여된 기존의 선형적 의미의 시간관이 폐기되었을 뿐 모든 진화의 과정을 폐기하지는 않은, 오히려 그것들을 전부 안에 응축하여 담지한 채 흐르는 무엇이다. 그렇다면 니체의 영원회귀를 '순환론을 도입한 역사주의 철학의 일종'으로 간주한 엘리아데의 의견은 꽤나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니체에게 앞서 정리한 고대인의 영원회귀로서 '영원으로 회귀한다'는 표현은 역사를 살아가던 인간이 스스로를 초월하고 진정한 자기를 찾아 본래적 영원의 상태를 자각하는 것(초인이 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영원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영원이 역사와 동떨어져 존재하고 인간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곧 영원과 동등한 존재론적 위상을 지님을 깨닫는 '인식적' 차원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수행한 두 사상의 시간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추후 '고통의 정당화' 및 '운명관'과 관련한 각 사상의 문제의식을 밝히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단계였다. 인간은 시간의 한계와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일상적 삶의 한계와 굴레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끝없는 발버둥은, '고통',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보이는 거대한 흐름의 덮침인 '운명'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

러한 시간 속에서의 '구원'의 문제는 시간 속에서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시간 자체가 야기하는 공포로부터 비롯된 질문이다.

2. 사상의 문제의식

1) 고통의 정당화

두 사상은 시간,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존재 및 그들의 삶에 실존적 의미와 책임을 부여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59] 다만 그러한 무게를 획득하려는 시도는, 납득 가능한 의미를 모색함으로써 이루어지느냐, 의미 자체를 초월함으로써 이루어지느냐 하는 방식 상에서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인간이 살아가며 필연적으로 부닥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죽음, 전쟁 등)으로서의 '고통'을 두 사상가가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의 고통은 개별적 사건으로서의 고통, '역사적 사실로서의 고통(100)'을 의미하는 구체적인 무엇이라는 점이다. 이것들은 가뭄, 홍수 등의 우주적 재앙이나 노예상황, 방화 등의 침략, 사회적 불의 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고통 등 개인에게 매순간 살갗으로 생생하게 닥쳐오는 '사건'에 의해 초래된다.

역사는 비가역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기에 필연적으로 예측불가능하며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수반한다. 그렇기에 전통적 인간은 각 개인과 집단에게 덮쳐오는 역사로서의 고통을 정당화하고자 가능한 모든 수단과 설명체계를 도입하나, 그러한 시도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엘리아데의 영원회귀에서 고통의 정당화는 주로 '역사적 사건과 고통에 원형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이다. 엘리아데가 기술한 고대인에게 고통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고통의 난데없는 출현, 우발성(102)"이다. 그것의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만 고통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따라서 구체적 고통은 감내되기에 앞서 항상 그것을 포괄하고

59) 서론에서 언급했듯 '고대인과 현대인에 대한 엘리아데의 현상적 기술'이 '인간에 대한 니체의 규정 및 분석'과 동일시되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엘리아데가 기술한 고대인과 니체가 규정한 이상적 인간상이란 층위에서 고통과 운명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정당화[해명]하는 설명체계를 요구받았다. 고통이 “의심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어떤 질서(법칙)와 부합하는 ‘의미’ 있는 것(100)”으로 여겨질 때, 즉 그것의 원인이 해명될 때 그것은 그러한 체계에 속한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것이 아닌 이해할만한 것, “당연한 것”으로 둔갑한다(104). 인도 문화의 카르마 개념, 기독교의 원죄 개념 등이 그러한 설명도구로서 활용되었다. 이러한 설명체계에 따르면, 고통은 보통 자신의 과오에 다른 수확이거나, 지고신의 의지에 의한 지고선의 실현이라는 목적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감내할만한 것으로서의 고통은 그 자체보다 그에 부여된 의미와 설명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반면, 니체가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은 고대인 또는 보편적인 시각과 큰 차이를 보이며 매우 독창적이다. 그에게 고통은 ‘의미를 초월한(또는 철회한) 무조건적 긍정’에 의해 정당화된다. 특정 사건에 견딜 수 없는 영원이란 무게를 부여하는 것은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종국에는 의미 자체가 무의미한, 즉 의미의 철회와도 같은 역설적인 상태를 야기한다. 모든 지점이 중심이라면 중심이 부재하듯이 모든 지점이 영원이라는 동등한 무게와 의미를 부여받는다면 각 지점은 다른 지점과 특별히 구별되는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각 지점이 다른 지점과 동등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다.

>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예언자인가? 꿈꾸는 자인가? ... 한 방울의 이슬인가? 영원의 안개이며 향기인가? ... 고통 또한 쾌락이고, 저주 또한 축복이며, 밤 또한 한낮의 태양이다. ... 그대들은 지금까지 하나의 쾌락에 대해 ‘그렇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아, 벗들이여, 그렇게 했다면 그대들은 또한 모든 고통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말한 것이 된다. 만물은 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실로 꿰어져 있고 사랑으로 엮여있다. 그대들이 일찍이 어떤 한 순간을 향해 “다시 한 번!” 하고 원한 적이 있다면, 그대가 일찍이 “너는 내 마음에 드는구나, 행복이여! 찰나여! 순간이여!”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대들은 그 모든 것이 되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이 된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영원하며, 모든 것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실로 꿰어져있고, 사랑으로 엮여 있는 그런 세계를 사랑한 것이다, 아, 그대들은. 그대 영원한 자들이여, 이러한

> 세계를 영원히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라. 그리고 고통을 향해 "사라져라, 하지만 되돌아오라!"하고 말하라. 왜냐하면 모든 쾌락은 영원을 원하기 때문이다. (564-565, 밑줄 인용자)

위의 인용문을 통해 볼 수 있듯 니체에게 모든 순간은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이 역사의 한 순간이라도 긍정한다면, 즉 자신이 살아가는 시간의 어떤 한 지점에 대해서 기꺼이 '좋다'라고 선언한다면 그는 영원 자체를 긍정한 것과 같다. 기존의 사상과 언어에 따른 관념 및 그것들이 부여한 의미를 철회함으로써 역사와 영원의 구분이 모호해졌듯, 이제 비로소 고통과 쾌락의 구분 역시 모호해진다. "완전해진 것, 모든 성숙해진 것은 죽기를 바라[564]"는 반면, 모든 고통 받는 자들은 살기를 바란다. 그들은 "상속자"를 원하며 스스로를 바라지 않는데, 여기서의 상속자는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대상을 지칭한다.[60] 고통(고통 받는 자들)은 자기를 부정하고자 시도하며, 전통적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의미부여 및 정당화의 시도는 전부 이러한 나약한 자기부정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고통을 그자체로 직면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그에게 상속자와 같은 아이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듯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은 마치 각도에 따라 보이는 상이 달라지는 렌티큘러 카드처럼 존재와 부재, 의미와 허무의 미묘하고도 역설적인 조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것이 바로 니체 철학이 니힐리즘인 동시에 삶에 대한 궁극의 긍정이라는, 겉보기에는 모순적인 평가를 두루 받는 이유이며, 영원회귀가 초인과 더불어 그의 철학의 정수로서 간주되는 이유이다.

2) 두 사상가의 운명관

이러한 고통의 정당화에 대한 상이한 관점은 두 사상가의 '운명관'의 차이로 이어진다. 여기서의 운명은 앞서 언급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고통보다 원초적이고 포괄적인 무엇, 즉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인간이

60) 여기서의 '상속자'는 앞서 초인의 뜻을 이어받은 자들의 '상속'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라는 사실 자체에 의해 부가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 역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고통으로서 경험될 수 있으나 그보다 훨씬 보편적이고 불가피하며,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의 고통은 특히 중요하다.

시간과 운명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엘리아데의 논의를 끌어오겠다. 엘리아데는 인간이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간의 다른 모든 조건들이 수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조건"으로 보았다.[61] 그는 스스로를 유한한 '시간성'에 의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사람으로서 자각하며, 그러한 인간의 '역사의 공포'를 언급한다. 여기서의 역사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 인간의 다양한 상황'을 지칭하기에, 엘리아데가 말하는 역사적 상황은 곧 "인간 조건 그 자체"이다.[62] 이는 개개인의 행과 불행의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우주적 순환 속에 놓여있다는 조건 그 자체에 의해 부여되는 일종의 역사적인 운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운명에 대한 설명은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 당대의 역사 전체가 제기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의 노력이다. 이렇듯 불가항력적인 시간성의 공포를 극복하고자 창조적인 수단을 모색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종교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신화와 의례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제 논의는 엘리아데가 기술한 고대인들의 운명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원형론을 채택한 고대인들에게는 의례들만이 신화적 모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가 태초에 신이나 영웅 등 비범한 존재자에 의해서 행해진 행위의 반복으로서만 유효성을 지녔다. 끊임없이 반복할 뿐인 그러한 범례적인 행위들은, 인간의 필연적인 조건, 운명을 극복하고자 한 시도로서 간주된다. 즉 "종교적 인간이 신화 속 태초의 시간을 반복하여 영원히 현재화하는 것, 신화의 모범을 현재의 삶에 재현하며 역사 이전의 태초를 자신의 일상에 불러오는 것은 곧 시간의 흐름을 극복하는 일"이기도 하다.[63] 이러한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고자 하는 노력은 '자유'를 획득하려는 창조적 노력이며, 그렇기에 신화와 의례 등 '원형

61) 유요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종교와 종교학」, 『종교연구』 76(1) (2016), 6쪽.
62) 유요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종교와 종교학」, 7쪽.
63) 유요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종교와 종교학」, 9쪽.

의 반복'이란 종교적 행위는, 고대인이 운명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고자 시도했다는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원형론과 달리 순환론이 운명에 대해 취하는 관점은 매우 숙명론적으로 보일 수 있다.[64] 이러한 순환론에 의하면, 역사가 보여주는 그 어떤 재앙도 자의적이지 않으며, 필연적인 원인에 의해 요청된다. 즉 당대 역사의 드라마가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137)"이기에 인간은 역사를 감내할 수 있다. 엘리아데의 저서에 등장한 하나의 예로, 로마가 멸망할 시기의 군주나 사제는 로마의 영원한 갱신이라는 신화를 제시하며 '우주를 영원토록 재창조하여 연례적으로 재생시킨다'는 고대의 신화적 의미를 되찾고자 시도했다. 이는 우주적 차원에서 역사적 운명에 '가치'를 부여하려는 시도였다. 물론 이러한 숙명론적 자세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원형론, 순환론과 같은) 영원한 반복이라는 낡은 주제들과 그 밖의 고대적인 관점들의 숙명론을 비판하고자, 신이 역사를 끝장내고 재창조하고자 마음먹은 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65]

반면, 니체에게 운명은 주로 '자기 자신의 본연의 의지'와 동의어로서 사용되며, 따라서 운명애(*Amor Fati*)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존재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덕성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영원회귀에서 순간이 긍정되는 그 정도로 운명은 긍정되어야 하며, 이는 초인이 인간을 초월하는 자기 삶의 잠재성을 책임지려는 의지의 정도와도 동일하다. 위에서 운명은 '필연적으로 유한한 인간존재'의 불가항력적인 조건과 동일시되어 왔다. 하지만 초인에게 운명은 '필연적으로 유한한 인간존재'가 스스로를 초월하고자 할 때, 혹은 초월했을 때 긍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그것은 자신의 초월을 재촉하는 선물과 같은 계기일 뿐, 자신의 길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키는 무언가가 아니다. 아래의 인용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스스로를 '어부'로 지칭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초월을 북돋우는 초인이자 교사, 더 나아가 운명이다. 또한 초인은 이미 '필연적으로 유한한 인간존재'를 넘어섰기에, 시간이라는 필연적 조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그는 이미 영원회귀를 자각하고

64) 원형론과 순환론의 차이는 본고 3쪽 하단과 4쪽 상단을 참고할 것.
65) 보다 자세한 설명은 엘리아데, 미르치아, 『영원회귀의 신화』, 135-141쪽 참고.

있기에 자신의 존재가 영원과 동치임을 알고, 그러한 사실을 다른 인간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노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니체에게 운명은 기존의 사상이 흔히 '운명'이라 불러온 것, 즉 인간 조건의 필연적 한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 조건의 필연적 잠재성(그에게 인간은 필연적으로 넘어야 할 무엇이다)의 실현 가능성을 의미한다.

> 나는 원래부터 끌고 잡아당기고 잡아 올리고 끌어당기는 그러한 어부다. 잡아당기는 자, 키우는 자, 그리고 일찍이 자기 자신에게 "그대의 본래 모습 그대로 되라!"라고 적절하게 말했던 엄격한 교사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인간들이 내게로 올라오는 것이 좋겠다. (...) 나는 여기 높은 산 위에서 교활하게 그리고 비웃어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인내심 없는 자로서나 인내심 있는 자로서가 아니라 인내 그 자체를 잊어버린 자로서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내게는 인내라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
> 말하자면 나의 운명이 내게 넉넉하게 시간을 준 것이다. 운명이 나를 잊어버렸단 말인가? 아니면 운명이 커다란 바위 뒤의 그늘에 앉아서 파리라도 잡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나는 참으로 나의 영원한 운명에게 감사한다. 나를 재촉하지도 몰아세우지도 않고 나에게 장난질과 심술궂은 짓을 할 시간을 주었으니 말이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 고기를 잡으러 이 높은 산으로 올라왔던 것이다. (416-417, 밑줄 인용자)

영원한 반복이 앞서 의미의 초월을 통해 의미를 폐기했듯, 운명에 어느 정도 내포된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의 공포 역시 의미의 철회를 통해 '인내 없이도' 감내되게 된다. 그의 운명애는 자칫 숙명론으로 오해될 수 있다. 이미 모든 사건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영겁동안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순간의 태도가 미래의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 숙명론적이다. 허나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의 핵심은 순간이 영원의 무게를 지니며 반복될 것을 명심하고, 순간이 다시 돌아와도 후회 없을 정도로 충실히 삶을 살 것에 대한 제언이다. 따라서 운명을 수용하는 것은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 의지의 발현이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기에 모든 사건을 '그렇게 될 일'로서 간주하고 수복하는 태도는 '가련하기 그지

없는 안일함' 혹은 나약함으로서 비판받아야 한다.

위에서 제기된 순환론과 달리, 니체의 사상은 역사주의적인 관점을 채택하기에 숙명론과 더욱 거리가 멀어진다. 그에게 회귀의 영원성은 그 안에 영원한 진보를 담지하며 응축하고 있기에, 매순간 초월하려는 의지의 역동으로서의 운명은 그 자체로 매우 능동적이며 그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 역시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사상가의 운명관은 운명에 대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을 두루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각각이 운명과 그에 대한 태도의 능동성, 수동성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원형론을 채택한 고대인'이나 '영원회귀를 자각한 초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창조적 노력을 통해 운명에 대한 최선의 태도를 취하고자 모색하고 있다. 물론 '고통의 정당화 및 운명관에 대한 두 가지 설명 중 무엇이 보다 정확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 여기서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 모두 오랜 시간동안 인류에게 받아들여져 온 유효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운명과 고통이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또는 그것을 총괄하는 법칙이 있든 없든 한 개인이 그 법칙이나 법칙이 작용하는 방식 전체를 온전히 헤아릴 수 없음을 아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영원회귀라는 개념은 순간이 영원의 위상을 얻어도 기꺼이 '좋다'라고 외칠 수 있는가를 매순간순간에 스스로에게 자문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이미 그 개념의 등장배경이 된 문제의식을 성공적으로 다룬 듯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엘리아데와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을, 그러한 사상의 토대가 되는 인간관, 시간관, 고통에 대한 정당화 문제, 그리고 운명관 등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해보았다. 시간과 운명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비교작업을 수행한 것은 두 주제가

인간에 대한 탐구에 있어 핵심적이라는 직관에 의거했다. ‘시간’은 그 자체의 흐름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필멸,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역사적 사건 등 인간존재의 필연적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간은 인간의 고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이러한 한계로부터의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발버둥이라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영원회귀 사상이 등장한 것이다. 즉 영원회귀 사상은 시간에 의한 필연적인 조건(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유의 산물이다. 따라서 영원회귀 사상은 그자체가 ‘인간’에 대한 통찰의 집약체라는 점에서 깊이 탐구할 만한 주제였다.

물론 이 두 위대한 사상가의 영원회귀 사상을 비교하는 작업은 많은 한계를 지닌다. 특히 니체 사상에서 영원회귀 및 초인과 더불어 핵심적으로 간주되는 개념인 힘에의 의지에 대한 탐구가 이뤄졌더라면 운명관에 대한 훨씬 정교한 정리가 이뤄졌을 것이다. 또한 엘리아데가 제시한 고대인의 영원회귀 사상을 원형론과 순환론 외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했다면 훨씬 섬세한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던 비교작업을 통해 두 사상의 중요한 핵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며, 이러한 통찰이 현대의 인간들의 삶에도 유용하길 바란다.

주제어: 니체, 엘리아데, 영원회귀, 시간, 운명, 고통, 우로보로스

투고일: 2019. 10. 04.	심사종료일: 2019. 10. 31.	게재확정일: 2019. 11. 08.

참고문헌

니체, 프리드리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장희창 역, 서울: 민음사, 2004.

엘리아데, 미르치아. 『영원회귀의 신화』. 심재중 역, 서울: 이학사, 2003.

오윤정. 「영원회귀사상에서 드러나는 니체 고유의 시간성: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중심으로.」. 『미학』 82(3) (2016): 241-270.

유요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종교와 종교학」. 『종교연구』 76(1) (2016): 1-22.

이상엽. 「니체의 '동일한 것의 영원회귀'에 대한 연구」. 『한국니체학회연구』 5 (2003): 71-96.

Abstract

Comparison of Nietzsche and Eliade's Eternal Return Thoughts

: Mainly on the Time and Destiny

Oh, Jihye (Seoul National Univ.)

Ouroboros, which is shaped as a snake biting its tail, is a famous symbol of antiquity. It means that the beginning and the end exist at the same time, and each one stands for one another. The best name that represents this ancient symbol of various meanings may be "eternal return." There are two scholars who are famous for their ideas of eternal return- Mircea Eliade and Friedrich Wilhelm Nietzsche.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their critical minds and explanations, except that the core terms that form the backbone of their thoughts give us a similar feeling. Nevertheless, there are not many previous studies comparing these two concepts in my country, so I will try to compare them in this paper. This comparison will be meaningful as a new attempt to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core ideas of the two thinkers. For comparison, I refer to the core writings of the two thinkers- Eliade's *Le Mythe de l'éternel retour*, and Nietzsche's *Also sprach Zarathustra*. We should pay particular attention to 1) how time and destiny are connected, and 2) how two thinkers'

standpoints of time and destiny overlap with subtle differences.

Key Words: Nietzsche, Eliade, Eternal return, Time, Destiny, Pain, Ouroboros